



사랑해요, 우리 가족

◆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봅시다.



노랫말을 생각하며 「아빠 힘내세요」를 불러 봅시다.

아빠 힘내세요

딩동댕 초인종 소리에
열른 문을 열었더니
그토록 기다리던 아빠가
문 앞에 서 계셨죠

너무나 반가워 웃으며
아빠 하고 불렀는데
어쩐지 오늘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네요

무슨 일이 생겼나요
무슨 걱정 있나요
마음대로 안 되는 일
오늘 있었나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까치 아빠

키 큰 은행나무 꼭대기에 까치집이 있었지요. 까치집에는 물론 까치가 살았어요.

하루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키 큰 은행나무를 실어 가 버렸어요.

‘어, 우리 집이 어디로 갔지?’

까치는 깜짝 놀라 여기, 저기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까치집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높이, 높이 올라가 보았더니 나무를 싣고 가는 트럭이 보였어요.

‘저기다! 우리 집, 우리 집을 찾아야 해!’

까치는 날고, 날고 또 날아서 쫓아가고, 또 쫓아갔어요.

마침내 트럭이 멈춰 섰어요.

‘휴, 다행이야. 우리 집을 찾았어.’

까치는 숨을 헐떡이며 날아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때, 다른 까치들이 나타나 ‘픽!’ 가슴팍을 들이받았어요.

“어떤 녀석이 우리 동네에 마음대로 들어와!”

‘그, 그게 아닌데…….’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마구 덤벼들었어요. 까치는 할 수 없이 멀리 달아났어요.

한참 뒤에야 까치는 살금살금 돌아왔어요. 하지만 까치집은 이미 그곳에 없었어요.

‘아, 어디로 갔을까? 우리 집을 찾아야 해.’

까치는 다시 여기로, 저기로 집을 찾아다녔어요.

어느새 해가 기울었어요. 이제 날개 힘도 빠지고 부딪힌 가슴팍도 아파 왔어요.



까치는 슬펐어요.

‘이제 우리 집은 영영 못 찾는 걸까?’

까치의 순한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때였어요. 눈물 너머로 어른어른 까치집이 보였어요.

은행나무가 보였어요.

‘우리 집, 우리 집이야!’

까치는 남은 힘을 다해 날아갔어요.

마침내 집 위에 내려앉았을 때, 집 안에서 각시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지만 당신이 올 줄 알았어요.”

까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마음 다 알아요.’

까치는 빙긋 웃으며 이제껏 물고 있던 벌레를 건네주었어요.

그러자, 집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삐익, 뵙! 삐익, 뵙!”

알에서 깬 아기 까치들이 입을 한껏 벌린 채 오글거렸어요.

처음 보는 아빠한테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1 「까치 아빠」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1 까치 아빠가 집을 찾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나요?

- 2 까치 아빠가 애타게 까치집을 찾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2 「까치 아빠」에 나오는 인물의 마음을 알아봅시다.

- 1 까치 아빠가 집이 없어진 것을 알았을 때

- 2 까치 아빠가 각시와 아기 까치들을 만났을 때

- 3 까치 가족이 까치 아빠를 다시 만났을 때



3 보기와 같이 첫 글자가 같은 낱말을 써 봅시다.

보기 동생 - 동물 - 동화

1 가족 — —

2 사랑 — —


3 눈물 — —

4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전하는 방법을 써 봅시다.


- 나는 엄마께 편지를 써 드릴 거야.

- 나는

- 나는



5 우리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써 봅시다.



 배움 다지기

- 이야기 속 인물의 마음을 알아보았나요?
-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썼나요?

